

□ 제주일보(2021. 11. 19. 12면)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전국 농업기술보급혁신 ‘대상’ 수상
국내육성 메밀 품종 보급 체계 구축을 통한 제주메밀 특산화 사업

제주도농업기술원, 농업기술 보급 혁신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원장 황재종)이 18일 ‘2021년 농촌진흥청 기술보급 종합평가회’에서 ‘국내육성 메밀 품종 보



급 체계 구축을 통한 제주메밀 특산화 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아 농업기술 보급혁신 대상을 수상했다.

서부농업기술센터는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새소득작목 단지육성’이 높은 평가를 받아 지역특화작목육성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동부농업기술센터는 ‘나물용콩 생력 다수확 기술보급’으로 신기술현장 확산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 제주매일(2021. 11. 19. 6면)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 혁신 ‘3관왕’ 국내육성 메밀 품종 보급 체계 구축을 통한 제주메밀 특산화 사업으로 대상 수상

제주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 혁신 ‘3관왕’

제주메밀 특산화 앞장 등 농진청 경진대회서 수상

제주도 농업기술원이 농촌진흥청이 주최하는 ‘2021 농업기술 보급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포함해 3개 분야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도 농업기술원은 ‘국내육성 메밀 품종 보급 체계 구축을 통한 제주메밀 특산화 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아 농업기술보급 혁신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국내육성 메밀 품종 ‘양절’ 우량종자 생산(6982kg), 조기 보급 체계 구축(25ha) 등을 통해 국내 육성 품종 점유율을 확대하고 생산성을 높여 제주메밀

특산화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이다.

서부농업기술센터는 지역특화작목육성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센터는 초당옥수수, 미니단호박 등을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시켜왔다.

동부농업기술센터는 ‘나물용콩 생력 다수확 기술보급’으로 신기술현장 확산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국산품종 ‘아람’ 콩을 보급하고 파종부터 수확까지 일괄 기계화로 기존 품종대비 생산량 2.7배, 소득은 3.9배 증대시켰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양창희 감귤기술팀장은 “지속가능한 제주 농업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농축산신문(2021. 11. 25. 11면)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전국 농업기술보급혁신 ‘대상’ 수상
국내육성 메밀 품종 보급 체계 구축을 통한 제주메밀 특산화 사업

제주농기원, 농업기술보급혁신 ‘대상’ 수상

제주메밀 특산화 기여...메밀품종 보급체계구축 등

제주농업기술원이 ‘2021 농업기술 보급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농업기술보급혁신 대상을 포함한 3개 분야에서 수상했다.

제주도원은 농업기술보급혁신 대상을, 서부농업기술센터는 지역특화 작목육성 최우수상을, 동부농업기술센터는 신기술현장 확산 우수상을 받았다.

이번에 대상을 받은 ‘국내육성 메밀품종 보급체계 구축을 통한 제주메밀 특산화 사업’은 국내육성 메밀 품종 ‘양절’ 우량종자 생산 6982kg, 조기 보급체계 구축 25ha 등을 통해

국내육성 품종점유율을 확대하고 생산성을 높여 제주메밀 특산화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부농업기술센터는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새소득작목 단지육성’이 높은 평가를 받아 지역특화작목육성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동부농업기술센터는 ‘나물용콩 생력 다수확 기술보급’으로 신기술현장 확산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양창희 감귤기술팀장은 “지속가능한 제주농업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우지 기자
농축산신문 11(21.11.25.)

□ 농경과원에 12월호(112쪽)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전국 농업기술보급혁신 '대상' 수상 국내육성 메밀 품종 보급 체계 구축을 통한 제주메밀 특산화 사업

지역농업소식 | 제주

제주도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 전국 농업기술보급혁신 '대상' 수상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황재중)이 '2021 농업기술보급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농업기술보급혁신 대상을 포함해 3개 분야에서 수상했다. 농업기술원은 농업기술보급혁신 대상을, 서부농업기술센터는 지역특화작목육성 최우수상을, 동부농업기술센터는 신기술현장 확산 우수상을 받았다.

농업기술원은 '국내육성 메밀 품종 보급 체계 구축을 통한 제주메밀 특산화 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아 농업기술보급혁신 분야 대상을 수상하는 최고의 영예를 안았다. 국내육성 메밀 품종 '양절' 우량종자 생산 6,982kg, 조기 보급체계 구축 25ha 등을 통해 국내육성 품종 점유율을 확대하고 생산성을 높여 제주메밀 특산화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이 주최하는 '농업기술보급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전국 농업기술원 및 시군센터를 대상으로 혁신적인 농업기술을 보급한 기관을 선정하는 자리다. 이는 농업 연구개발(R&D) 성과의 신속한 현장 확산으로 농업기술 혁신과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한 신기술보급사업·정부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기술자원조정과 T. 064) 760-7512